

현대(1990~2008)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 및 의복과의 유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김 은 실

호남대학교 겸임교수, 재)광주디자인센터 선임연구원

A Study of Surrealistic Hat Designs and Their Organic Relationship with Clothes in Modern Fashion (1990-2008)

Eun-Sil Kim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onnam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of Gwang-Ju Design Center

(투고일: 2009. 6. 24, 심사(수정)일: 2009. 9. 9, 게재 확정일: 2009. 9. 15)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f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Surrealistic clothes and hat with the focus on the period from the 1990's to 2008 and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ext hat design. The metho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es and hats was the formative analysis by Marian L. Davis and Marilyn R. Delong. Hat design of surrealism was cylindrical or tear drop in a shap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épaysement and Trompe l'oeil, and was similar with the Form of a jacket, a sleeve, or a skirt. In color, accent color coordination mainly appeared and sometimes contrast color coordination induced illusion effect. In material, a variety of materials were us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épaysement and Trompe l'oeil, and contrast was widely used like color. In Decoration, the decoration or pattern of clothes was intactly applied to hats. The results suggest that clothes and hat have an organic relationship, and a hat style is changed with formative elements of clothes.

Key words: formative relationship(조형적 관계), surrealistic characteristics(초현실주의적 특성),
Marian L. Davis and Marilyn R. Delong(데이비스와 데롱), form(형태), color(색채),
material(소재), decoration(장식)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모자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착용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의복을 보완해주는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모자는 다른 어떤 패션 아이템보다도 눈에 잘 띠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자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신분이나 계급,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20세기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모자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개성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표현은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모자가 의복과 어울리도록 개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된다는 것이다.

특히 복식학자인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은 초현실주의는 모자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예술사조¹⁾라고 말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자의 초현실성은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에서 시작되어, 그 후 많은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패션학자인 제임스 레이버(James Laver, 1899-1975)는 의복과 모자 형태는 뚜렷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모자는 의복의 형태, 색채, 소재, 장식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²⁾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복에 대한 형태분석은 있었으나, 의복과 모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자 스타일이 공존하며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를 중심으로 의복과 모자와의 조형적 관계를 분석해 앞으로의 모자 디자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모자에 영향을 미친 초현

실주의 예술 사조를 중심으로 모자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조형 분석 방법을 마리안 데이비스(Marian L. Davis)의 「Visual Design in Dress」와 마릴린 드隆(Marilyn Revell Delong)의 「The Way We look」에 의해 조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사진자료를 통해, 의복과 모자와의 조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모자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배경은 1900년 이후 2008년 까지 선행연구와 패션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형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사진 자료는 1990년부터 2008년 파리 오트 쿠튀르 컬렉션이 수록된 각종 패션잡지 「Mode et Mode」, 「Gap Collections」, 「Collections」, 「Book Moda」 등과 각 디자이너의 작품집에서 추출하였다. 먼저 1차적으로 의복과 모자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자료를 1500장 추출한 다음, 그 중에서 초현실주의 모자디자인으로 사료되어지는 사진자료 총 207장을 최종 선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모자디자인의 역사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의 직장진출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현대 여성에게 적합한 패션이 요구되었다. 이는 아르테코의 예술양식과 기능주의의 추구가 더욱더 성숙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현실적인 예술양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모자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시대를 풍미했던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나 자크 두세(Jacques Doucet, 1853-1929) 등 기성 베종들은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호화롭고 장식성 있는 의복과 함께 모자를 선보였고,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1883-1971)이나 장 파투(Jean Patou, 1888-1936)등은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근대 여성에게 적합

한 기능적인 의복에 맞추어 장식성이 없는 깨끗한 라인의 모자 패션을 선보이면서 신·구세력간의 스타일의 대립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샤넬은 모자에 대해 외관을 마무리해주고 강조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의상처럼 샤넬의 모자도 불필요한 장식의 결여와 라인의 단순함이 그 특징이었다³⁾. 샤넬의 모자 장식은 심플하였고 완벽하게 일직선을 이루는 형태들이었다⁴⁾. 이는 단순한 형태와 장식이 배제된 의복에 클로슈(Cloche)와 같이 머리에 꼭 눌러쓰는 모자를 조화시켰으며, 여기에 르네상스와 비잔틴 시대 보석에서 영감을 얻은 모조 진주나 화려한 색상의 보석 브로치 등을 장식하기도 하였다⁵⁾.

또한 샤넬은 초현실주의를 모자디자인에 반영하여, 조가비 모양의 모자와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선보임으로써 해변에서의 생활과 수중 생물을 초현실주의 아이템으로 나타냈다⁶⁾. 이러한 초현실주의적인 모자 디자인은 샤넬 뿐만 아니라 엘자 스키아파렐리에게도 영향을 줌으로써, 현재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인간 뇌의 소용돌이처럼 되풀이되는 소용돌이 모자, 뾰족한 어릿광대 모자, 새끼양 커틀렛 모자(Lamb cutlet hat), 주름진 오간자로 만든 조가비 형태의 모자(Seashell hat), 신발 모양의 모자(Shoe hat), 망원경 모자를 디자인하기도 했다⁷⁾. 뿐만 아니라 스키아파렐리가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에는 한계가 없어 신문, 플라스틱, 항아리, 노래하는 카나리아가 들어있는 새장 등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형태를 등장시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1937년 앞뒤가 뒤바뀐 신발형태의 모자(Shoe hat)를 디자인함으로써 초현실적인 모자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까요 자매(Callot sisters)⁸⁾, 루이스불랑제(Louiseboulanger, 1878-1950), 에드워드 헨리 몰리뇌(Edward Henri Molyneux, 1891-1974), 루시앙 르롱(Lucien Lelong, 1889-1958), 메인 부처(Main Bocher, 1890-1974), 마들레느 비오네(Madelein Vionnet, 1876-1975)와 같은 많은 오토 쿠티르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의복과 함께 다양한 모자 디자인을 선보였다.

2. 모자디자인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초현실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다다이즘 운동이 진정되어 갈 즈음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다이즘은 반예술적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데에서 오는 필연적 악순환에서 몰락을 자초하였으며, 이것을 능동적으로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초현실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 혁신의 운동으로 추상미술과 함께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술사조의 하나가 되었다⁹⁾.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의복에 표현된 초현실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꽈미영¹⁰⁾은 의복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을 데뻬이즈망과 오토매티즘(Automatism)으로 구분하고, 이는 의복에 초현실주의 화가 작품을 응용하거나 착장 방식의 변화, 의복의 착시효과, 자연오브제화, 프로파쥬나 그라파쥬와 같은 기법의 사용으로 표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윤계숙¹¹⁾은 초현실주의를 꽈리쥬, 데뻬이즈망, 트롱프 뢰유 기법을 통해 의복 및 장식에 표현된다고 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정리하여,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를 크게 데뻬이즈망(Depaysement)과 오토매티즘(Automatism)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데뻬이즈망은 전치, 전위법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어로서 본래는 ‘사람을 타향에 보내는 것’ 또는 ‘다른 생활환경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다른 엉뚱한 곳에 놓음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쇼크를 주게 하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이다.¹²⁾ 오토매티즘은 자동기술법이라 번역되며, 이성에 의한 일체의 통제없이, 또 미학적, 윤리적인 일체의 선입관 없이 행하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이 표현양식이다.¹³⁾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의복에 다양한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데뻬이즈망의 원리에 의하여 의복에서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응용하거나 바지 형태의 재킷이나 앞뒤가 바뀐 재킷 등으로 응용되기

도 하고, 트롱쁘 뢰유 기법을 통한 의복의 착시효과, 의복의 자연오브제화로 나타난다. 또한 오토매티즘 역시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의복에 응용하거나, 포로타쥬나 그라따쥬와 같은 기법의 소재로 의복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복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자 디자인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 둘째, 첫 번째 특성에서 파생된 스케일의 변화, 셋째, 데뻬이즈망 기법, 넷째, 트롱프 뢰유를 모자에 이용하는 방법, 다섯째, 자연물의 형상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었다. 단, 프로따쥬나 그라따쥬와 같은 기법은 모자에 응용되는 고유한 초현실주의적 기법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그림 2-1참조).

첫째,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응용한 예로, '의자 모자(Chair hat)'가 있다. 이는 마그리뜨의 〈회화술, L'art De La Conversation(1958)〉의 작품에서 벌판에 큰 돌을 잘라서 만든 의자 모양의 구조물을 응용한 작품으로, 의자 형태의 모자는 1980년대의 칼라거펠드를 거쳐 1990년대에는 필립 트레이시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다(그림 2-2)¹⁴⁾. 이 외에도 모스키노는 마그리뜨의 (그림이 그려진 병, Painted Bottle, 1928)을 응용하여 의복과 모자를 디자인하였는데, 〈그림 2-3〉¹⁵⁾에서처럼, 의복과 함께 모자에 하늘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사람의 눈이 있는 마그리뜨의 작품을 응용하였다.

둘째, 초현실주의 화가 작품의 응용에서 파생된 특징으로 스케일의 변화가 있다. 이는 마그리뜨의 작품에서 돌을 잘라 만든 의자모양의 구조를 위에 실제 모양의 의자를 올려놓음으로서 구조물의 크기를 비교시킴으로써 스케일의 변화라는 특징을 파생시키고 있다¹⁶⁾. 이것은 초현실적 특성으로서 비례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그림 2-4〉¹⁷⁾의 장 루이 세레(Jean Louis Scherrer, 1935-)의 작품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스케일 변화는 이미 칼 라거펠트에 의해 80년대에 선보였는데, 이는 과란색의 소파에 앉아 있는 모델의 머리 위에 같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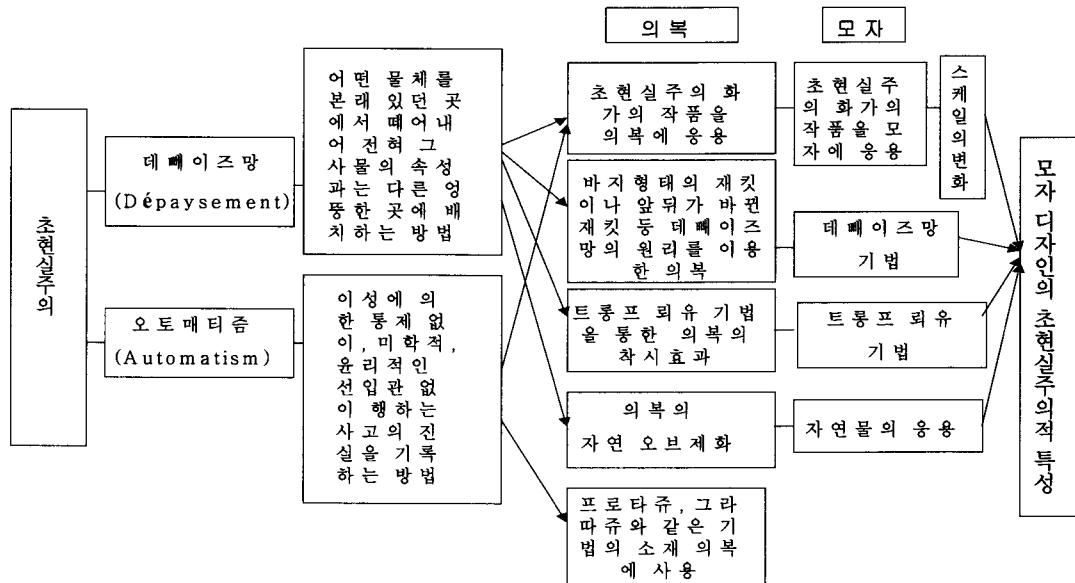
의 소파 모자가 같은 색상으로 축소되어 씌워져 있어, 스케일의 변화와 더불어 위치나 본질이 변화됨으로서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스케일의 변화는 모자를 매우 크게 혹은 작게 만들므로써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¹⁸⁾.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살바도르 달리와 함께 작업하면서 아주 작은 모자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작은 것으로, 파리에서는 영문자 'i'에 점을 찍은 작은 모자를 써서 사이즈 비례를 대조시켜 완벽한 실루엣을 연출했다¹⁹⁾.

셋째, 모자에 데뻬이즈망의 원리를 이용하여 초현실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 특성은 전혀 다른 엉뚱한 소재가 머리 위에 착용되는 것으로, 가면이나 새장, 책, 코르셋, 정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2-5〉²⁰⁾는 지방시 하우스의 책 형태의 모자로, 이러한 모자는 이미 60년대에 위베르 드 지방시에 의해 선보였고, 1999 S/S에 또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그림 2-6〉²¹⁾의 2005 S/S 알렉산더 맥퀸 작품은 머리 위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정경이 펼쳐져 있는 모자의 형태로 데뻬이즈망의 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이 외에도 입술모양의 모자나 새장모양의 모자 등으로 데뻬이즈망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작품을 그 예로 들수 있다. 이는 어떤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벗어나, 현실과 동떨어진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초현실주의적인 방법을 표현해낸 것으로 보인다.

넷째, 트롱프 뢰유 기법을 모자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990년대 이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1949년 봄 컬렉션에서 의복과 모자에 트롱프 뢰유 컬렉션을 선보였으며²²⁾ 엘자 스키아파렐리 역시 트롱프 뢰유를 응용한 스웨터 컬렉션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의복에 어울리는 모자 역시 한쪽 눈만 가리는 형태로 눈속임 기법을 응용하기도 하였다²³⁾. 이후 〈그림 2-7〉²⁴⁾의 뮤클러의 작품에서처럼, 모자로 얼굴의 윗부분을 가림으로써 눈이 모자의 일부로 표현됨으로써, 얼굴과 모자가 분리되는 눈속임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림 2-8〉²⁵⁾은 손을 이용한 전형적인 트롱프 뢰



〈그림 2-1〉 초현실주의 이론 및 복식에의 표현 방법



〈그림 2-2〉 Philip Treacy, *Mode et Mode*, '00 s/s



〈그림 2-3〉 Moschino, *Mode et Mode*, '95-'96 F/W



〈그림 2-4〉 Jean Louis Scherrer, *Gap Collections*, '03-'04 A/W



〈그림 2-5〉 Givenchy *Mode et Mode*, '99 s/s



〈그림 2-6〉 Alexander McQueen, *Mode et Mode*, '05S/S

유로서, 손 모양의 모자와 실제 손과 가짜 손 사이에서 눈속임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2-9〉²⁶⁾는 모자의 보우장식이 마치 얼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쪽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다섯째, 자연물의 형상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이다.

1990년대 이전 샤넬이나 스키아파렐리에 의해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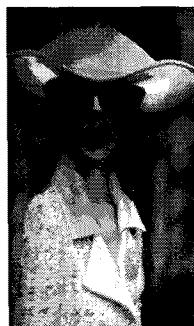
현되었던 조가비 형태의 모자는 그 후 디오르나 크리지아(Krizia)에 의해 계속 모자 디자인에 표현되었다. 최근 필립 트레이시의 작품에도 조가비의 형태가 다시 등장할 정도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초현실주의적 소재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꽃 모양이나 나무 형상을 주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림 2-10〉²⁷⁾은 피에르 발맹의 나무 형상의 초현실적 형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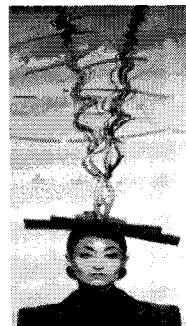
〈그림 2-7〉 Tierry Mugler, *Mode et Mode*, '98-'99 F/W



〈그림 2-8〉 Dolce & Gabbana, *Mode et Mode*, '99-'00 F/W



〈그림 2-9〉 Christian Lacroix, *Mode et Mode*, '91 s/s.



〈그림 2-10〉 Pierre Balmain, *Mode et Mode*, '92-'93 F/W



〈그림 2-11〉 Philip Treacy, *Mode et Mode*, '00 s/s

모자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며, 〈그림 2-11〉²⁸⁾ 역시 필립 트레이시에 의해서도 이러한 특성이 실현되고 있는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은 초현실주의는 모자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예술사조라고 말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자의 초현실성'은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에서 시작되어, 그 후 많은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데并不意味과 오토데티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의복에 5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모자에서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응용하는 경우나, 데并不意味 기법, 트롱파 퇴유 기법, 자연물의 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아래 〈그림 2-1〉은 초현실주의 이론 및 복식에의 표현방법을 정리한 그림이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추출 및 경향분석

본 고에서 분석한 사진 자료는 1990년부터 2004년 S/S까지 파리 오트 쿠튀르 컬렉션이 수록된 각종 패션 잡지 「Mode et Mode」, 「Gap Collections」, 「Collections」, 「Book Moda」 등과 각 디자이너의 작품

집에서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된 사진자료는 총 1381 장으로 2차에 걸쳐 선정되었는데, 1차적으로 의복과 모자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자료를 1500장 추출한 다음, 그 중 분석 자료로서 부적합한 19장을 제외한 1381장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초현실주의 모자디자인으로 사료되어지는 사진자료 총 207장을 최종 선택하였다.

모자와 의복의 조형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데이비스와 들통의 조형적 분석방법을 적용시켰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모자란 머리에 장식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머리에 두르는 베일이나 스카프, 가발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하며 외래어나 디자이너명, 모자의 명칭 등 전문 용어는 일관된 표기법을 따르기 위하여 복식사전(服食事典)²⁹⁾에 수록된 용어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2. 의복과 모자디자인의 조형적 관계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조형적 측면에서 의복과 모자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데이비스와 들통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형태

형태에 있어서 분석 방법은 주로 전면사진을 중심으로, 의복과 모자의 전체적인 실루엣 혹은 부분적인

실루엣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형태를 통해 유기적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세잔느는 형을 원뿔형, 원통형, 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데이비스의 형과 형태에 관한 원리를 보면, 평면의 기하학적인 형은 동일한 변들을 가진 정사각형, 원, 정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동일하지 않는 차원들의 평면의 기하학적 형은 타원형, 부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꼴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3차원적 기하학적 형태는 동일한 면인 구와 정육면체가 있으며, 동일하지 않는 면들로 된 관이나, 원통형, 원뿔형, 사각뿔형, 상자형, 종형, 돔형, 달걀형, 모래시계형, 나팔형이나 배럴형 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형이나 형태는 복식 분석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언급하였다³⁰⁾.

또한 들롱은 형은 단순한 형과 복잡한 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형으로는 원, 정사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등이 포함되고 복잡형은 여러 형들이 서로 인접해 불연속적인 윤곽선을 보이거나 윤곽선을 공유한 경우 보이는 관찰되어 어려운 형태라고 언급하였다³¹⁾. 이러한 형태를 들롱은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었는데, 폐쇄형은 명료하고 볼록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이며 단순한 선이며, 개방형은 모호하고 오목한 가장자리로 불연속적이며 복잡한 선이라고 표현하였다³²⁾. 이에 한 단계 나아가서 형과 형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전체 형태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를 실루엣이라고 정의하면서 2차원적인 형과 3차원적인 형태를 유기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1단계에서는 의복과 모자의 형태 분석 대상을 전체형이나 부분형으로 설정한다. 즉, 의복이나 모자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평가 대상으로 하거나, 부분적 요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의복과 모자의 분석 대상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분석한다. 이때 폐쇄형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될 수 있고 개방형은 부정형에 속하게 된다. 특히 폐쇄형은 2차원-3차원적으로 사각형-원통형이나 상자형, 삼각형-원뿔형, 타원형-배럴형

이나 벌룬형, X자형-모래시계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와,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돔형, 눈물방울형, 하트형, 성형, 첨정홍예형, 페이즐리형, 클럽형, 스페인드형 등은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에 의한 형태적인 조화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2차원, 3차원은 들롱이 언급했던 것처럼 윤곽에 대한 음영의 유무로서 이러한 차원을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의복과 모자의 형태 분석 대상을 전체형이나 부분형으로 설정한 다음, 각각의 형을 2차원-3차원적으로 사각형-원통형이나 상자형, 삼각형-원뿔형, 타원형-배럴형이나 벌룬형, X자형-모래시계형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형인 즉 돔형, 눈물방울형, 하트형, 성형, 첨정홍예형, 페이즐리형, 클럽형, 스페인드형 등은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이 외의 모든 형은 부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형이나 형태는 각각의 사진에서 숄더 라인(Shoulder line), 웨이스트 라인(Waist line), 헴라인(hem line)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되, 전체-전체형은 의복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모자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분석하였으며, 부분-전체형은 의복의 상의, 하의, 슬리브, 라펠과 모자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2) 색채

데이비스는 색채에 의한 조화를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나누었고, 들롱은 색상, 명도, 채도 중 한 가지 요소만 유사하면 조화관계를 이룬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1단계로 색상과 톤으로 구성된 색채를 분석하는데 있어, 먼저 의복과 모자 각각의 주조색을 살펴보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상호 관련성을 보노 톤 배색(mon tone color coordination), 톤 온 톤 배색(tone on tone color coordination), 톤 인 톤 배색(tone in tone color coordination), 콘트라스트 배색(contrast color coordination), 액센트 배색(accent color coordination), 세파레이션 배색(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콤플렉스 배색(complex color coordi-

nation)³³⁾으로 분류함으로써,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의 그 조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조화관계에 의해 어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색채 분석에 있어, 의복과 모자에서 문양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문양인 경우, 문양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3) 소재

데이비스는 소재의 표면적 특성을 촉각, 시각, 청각에 의해 평면의 광택과 느낌, 투시정도, 두께, 유연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들롱은 소재를 표면과 구조로 나누어 단순한 소재와 복잡한 소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먼저 1단계로 의복과 모자의 소재가 단순소재인지 복잡한 소재인지를 파악하고, 2단계로는 각각의 두께 및 유연성을 살펴본 다음, 3단계에서는 비치는 정도에 의한 투명도, 4단계에서는 빛 반사력에 의한 광택의 유무를 중심으로 마지막 5단계에서는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두께와 함께 부드럽거나 딱딱하다는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투명도에 의한 비치는 정도는 얇아서 비치며 힘이 있는 느낌의 슬릭(slick)재질, 얇아서 비치며 하늘하늘한 느낌의 시어(sheer)재질, 짜임이 성글어 틈 사이로 피부가 비치는 느낌인 레이시(lacy)재질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되는 소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빛 반사력에 의한 광택의 유형에 따라 차가운 광택의 느낌이 나는 메탈릭(metallic)한 소재, 금사나 은사를 넣어 짠 화려한 광택의 고저스(gorgeous) 소재, 번들거리고 코팅처리된 것 같은 글로시(glossy) 소재,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택의 실키(silky)소재로 분류하여 각각의 빛 반사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4) 장식

본 고에서는 앞의 조형적 요소들의 분석 방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복과 모자의 각각의 장식 기법을 파악한 다음,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한 단계 더 나아가 앞에서 데이비스와 들롱의 이론을

적용시켜 분석된 조형이론들을 바탕으로 장식의 형태, 전체적인 형에 따른 분량, 색채, 소재를 파악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디테일에서는 드레이프(drape), 프릴(frill), 개더(gather), 러플(ruffle), 플라운스(flounce), 셔링(shirring)등의 곡선적 형태의 장식과 터킹(tucking), 톱스티칭(top stitching), 퀼팅(quilting), 패치워크(patchwork), 스모킹(smoking) 등의 직선적 형태의 장식과 스칼럽(scallops), 보우(bow), 에풀릿(epaulet), 탭(tab), 파이핑(piping), 슬릿(slit) 등이 각각의 의복과 모자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찾고자 한다. 또한 트리밍에서는 브레이드(braid), 리본(ribbon), 시퀸(sequin) 등이 각각의 의복과 모자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V.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과 의복과의 조형적 관계분석

1.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의 디자인 특성 분석

분석결과, 시기별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의 경향은 아래 <표 1>과 같다.

시기별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모자디자인은 200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후반의 세기말현상 및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적 경향이 반영된 현상으로써 파악된다.

이러한 모자디자인의 경향속에서 이미 앞절에서 분석된 5가지 특성에 의해 분석한 결과,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총 207점 중에서 화가 작품을 응용한 경우는 33점(15.9%), 스케일의 변화는 27점(13.0%), 데并不意味 기법을 응용한 경우는 67점(32.4%), 트롱프 뢰유 기법을 응용한 경우는 42점(20.3%), 자연물의 응용은 38점(18.4%)으로 데并不意味 기법을 응용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시기별 조형적 특성의 변화

(단위: 점)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작품수	10	10	6	3	12	6	6	4	3	13	15	8	12	11	15	15	17	22	19	207

〈표 2〉 조형적 특성에 따른 작품 분포율

분류	작품 분석 기준	작품수	작품 비율 (%)
초현실 주의적 특성	화가 작품 응용	33	15.9
	스케일의 변화	27	13.0
	데빼이즈망	67	32.4
	트롱프 퇴유	42	20.3
	자연물 응용	38	18.4
총합		207	100

2.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 특성과 의복과의 조형성 분석

본 장에서는 앞장 2절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의 특징인 화가의 작품 응용, 스케일의 변화, 데빼이즈망 기법 응용, 트롱프 퇴유 기법 응용, 자연물의 응용의 특징을 보이는 최종 207 장의 대표적인 사진자료를 선정하여 의복과 모자디자인의 조형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분량상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진자료인 19장만을 본 고에 실었으며, 각 대표사진은 작품번호수에 따라 비율대로 추출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3〉은 대표사진 19장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의복과 모자디자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1) 화가의 작품 응용

모자디자인이 화가의 작품을 응용한 경우로, 〈그림 4-1〉³⁴⁾은 달리의 작품을 응용하여 표현한 루이페로(Louise Féraud)의 작품으로, 회화를 프린팅하여 모자로 착용하고 그 위에 깃털을 부착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의복과 모자가 부분형으로 인식되며, 의복은 경계선이 뚜렷한 폐쇄형이며, 모자는 주위 환경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라인이 단순하지 않은 개방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의복의 라벨은 삼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소매의 커프스는 텔 장식으로 인해

부정형으로 분석될 수 있고, 모자 또한 부정형으로 분석됨으로써 조화관계를 이끌고 있다.

〈그림 4-2〉³⁵⁾, 〈그림 4-3〉³⁶⁾, 〈그림 4-4〉³⁷⁾은 르네 마그리뜨의 작품 중 다양한 물체들이 하늘에 떠 있는 현상과 관련 있는 작품들이다. 〈그림 4-2〉는 98년 지방시 하우스에서 깃털을 부착한 모자를 머리 위에 고정시킴으로써 위치변경을 시도한 초현실적인 작품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자가 머리 위에 쓰여진다는 기준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머리 위에서 떠있게 함으로써 데빼이즈망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도 사료된다. 이 작품은 의복과 모자가 모래시계형과 원의 호 형태로 분석됨으로써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림 4-3〉 또한 입술이 떠 있는 형태의 모자로 각각의 입술은 주위와 경계가 뚜렷히 구분되고 있어 폐쇄형에 속하며, 이와 함께 의복 역시 폐쇄형에 속한다. 따라서 스커트의 원기둥과 입술 모자의 타원형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모델의 입술과 입술형태의 모자가 구분이 모호하여 시각적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그림 4-4〉 역시 입술 형태의 모자로 의복과 모자는 폐쇄형에 속하며, 각각 전체형과 전체형으로 인지되고, 원피스는 비정형, 모자는 입술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입술의 윗 라인은 원피스의 가슴 부분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보이고 있는 화가작

품을 응용한 초현실주의적 특징의 모자들은 색채에 있어 주로 모노톤 배색, 콤플렉스 배색, 액센트 배색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그림 4-4>는 검은색의 원피스 드레스에 레드의 입술 형태의 모자를 배색시킴으로써, 강한 대비효과로서 액센트 배색을 이끌며 모자에 포인트를 주면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그림 4-1>은 실크 재킷에 깃털 장식의 모자가 착용되기도 하고, <그림 4-2>는 레이스 소재에 깃털모자, <그림 4-3>은 실크 소재의 의복에 입술 모양의 펠트 모자 등 대비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식에 있어서는 의복의 장식이 모자에 그대로 옮겨져 적용된 경우나 의복의 문양의 형태가 모자에 그대로 옮겨져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림 4-1>에서 의복 커프스 부분의 털 장식은 모자의 털 장식과 유사한 형태로서 조화를 보이고 있었다.

2) 스케일의 변화

최근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스케일의 변화 특징을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은 스케일의 과장 혹은 확대 현상을 보이는 경우로서, 이는 이미 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르네 마그리뜨의 작품에서 파생된 특징에 해당된다. <그림 4-5>³⁸⁾는 의복과 모자가 각각 경계가 뚜렷한 폐쇄형으로 의복의 소매와 스커트는 배럴형, 모자는 원형의 집합으로 서로 유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의복에 사용된 엘로우가 모자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실크소재의 의복과 스트로우 소재의 모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장식에 있어서도 의복과 모자가 큰 유사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복과 모자의 스케일 변화에 초점을 둘으로써, 다른 조형적 특성은 유사조화보다는 대비조화를 통해 극적효과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시 말해, 스케일변화를 보이고 있는 27장의 작품에서도 규모의 변화로 인해, 다른 조형적 요소에는 거의 중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3) 데并不意味 기법 응용

데并不意味 기법이 적용된 모자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초현실적인 모자 디자인에 끊임없이 등장한 새장 형태의 모자의 예인 <그림 4-6>³⁹⁾은 형태적으로 새장의 원기둥형태와 의복의 변형된 긴원기둥이 비정형이지만 유사성이 보이고 있는 경우이다. <그림 4-7>⁴⁰⁾ 역시 솔처럼 걸친 의복이 나선형의 문양이 있는 비닐소재로,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일정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 개방형을 보이고 있으며, 새장형의 모자는 메탈을 사용하여 일정한 라인을 그리며 눈물방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4-8>⁴¹⁾에서는 의복과 모자가 전체형으로 각각 인지되며, 방사선 주름형태의 의복과 스칼럽 형태의 모자가 매치되고 있다. <그림 4-9>⁴²⁾에서는 의복과 모자가 폐쇄형을 이루며, 의복의 부분형과 모자의 전체형이 시각적으로 인지되면서 슬리브 형태와 모자의 형태가 눈물방울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4-10>⁴³⁾에서도 책 형태의 모자로 이 역시 데并不意味 기법이 적용된 작품으로 책의 형태는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고, 의복은 실크를 사용하여 바디에 흘러내린 듯한 감각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패치워크된 형태 또한 사각형의 결합으로 모자와의 유기적 관련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4-1>에서는 의복에 장식적인 면을 부가시켜 부정형의 개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모자 또한 뾰 형태를 보이는 동물의 형상으로 부정형의 개방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4-2>는 필립 트레이시의 작품으로, 1930년대의 엘자 스키아파렐리에 이어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디자이너로 급부상하면서, 신발 형태를 모자 디자인에 적용하여 스키아파렐리의 '신발 모자'를 연상케 하고 있다. 또한 신발 형태의 모자에 꽂이 피는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유머러스 함 또한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의복은 전체형, 모자는 부분형으로 인지됨으로써, 원피스는 원기둥 형태를 보이고 있고, 신발형태의 모자는 첨정홍예형을 보이고 있다.

데并不意味 기법을 응용한 작품역시, 형태에 있어서는 의복과 모자가 서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석기준이 전체형이거나 부분형이든 유사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이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는, <그림 4-9>처럼, 레드의 상의와 블랙의 모자는 강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의복의 주조 색인 레드계열에 포인트를 주면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 4-12>⁴⁴⁾의 필립 트레이시의 작품에서도 의복의 주조색인 그린과 모자의 레드계열은 색채에 있어 보색 관계로 모자의 레드가 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강하게 포인트를 주는 액센트 배색을 이루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그림 4-6>은 모직소재의 의복에 메탈릭한 새장의 모자가 작용되고 있으며, <그림 4-10>, <그림 4-15>⁴⁵⁾는 실크소재의 원피스에 웨스트 모자가 각각 매치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그림 4-7>에서처럼, 비닐소재의 솔과 글로시한 코팅처리가 된 원피스가 새장 모자의 메탈릭한 금속과 함께 재질과 투명도, 광택의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서 서로 조화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소재에 있어서 대비조화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장식에 있어서, 데빼이즈망 모자디자인은 장식이 가미된 의복에 매치되어, 비장식적 모자로 조화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전혀 엉뚱한 소재가 등장함으로써 장식적인 부분도 일치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하다. 그러나 <그림 4-9>에서의 슬리브의 레이스 장식은 모자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새장 형태의 모자는 1930년대의 엘자 스키아파렐리를 거쳐 그 후 장 폴 골티에, 파코 라반, 지방시 하우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림 4-11>⁴⁶⁾에서도 의복에 보우나 레이스, 시퀸 장식등이 모자의 편陲과 비즈 장식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4) 토템프 회유 기법 응용

모자에 토템프 회유 기법을 적용시킨 경우로, 이 역시 형태에 있어서 주로 유사한 형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4-13>⁴⁷⁾은 의복과 모자 모두 폐쇄형이자 의복은 부분형으로 모자는 전체형으로 인식된다. 이때 의복의 화이트 부분은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분리되어 침정홍예형을 보이고 있으며, 모자는 원형을 이루며 매치되고 있다. <그림 4-14>⁴⁸⁾는 장 폴 골티에의 작품으로 머리를 땀 형태의 모자가 마

치 짙은 니트형태의 모자인 것처럼 착각하여 눈속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복과 모자가 각각 부분형으로 인지됨으로써 모자는 원형의 브림과 원기둥의 크라운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모래시계형의 상의와 끝이 잘린 원뿔형태의 스커트와 함께 유사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림 4-15>는 티에르 뷔글러의 작품으로 의복과 모자는 프린지 장식으로 인해 모두 개방형의 혼합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복에서 배럴형의 스커트에 프린지 장식이 부착되면서 부정형의 개방형을 보이고 있으며, 모자에서도 원기둥의 모자형태에 깃털이 장식되어 기본적인 폐쇄형에 개방형이 부가된 형식이다. 따라서 모자의 형태는 마치 스커트의 형태를 거꾸로 뒤집어 쓴 것처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4-16>⁴⁹⁾은 디올 하우스의 작품으로 의복과 모자의 구성선에 파이핑 처리가 되어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또한 의복과 모자는 폐쇄형으로 각각은 부분형으로서 인지된다. 따라서 스커트 험 라인의 다양한 사다리꼴과 모자의 브림 부분에 부착된 사다리꼴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림 4-17>⁵⁰⁾은 레이스로 머리둘레를 감싸 마치 꽃처럼 보이도록 착각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모델의 얼굴 또한 꽃의 일부분으로 착시를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의복은 부분형으로, 모자는 전체형으로 분석 비교되며, 스커트의 끝이 잘린 원뿔형과 모자의 원형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 <그림 4-13>에서의 흑백 대조에 의한 콘트라스트 배색은 명도차에 의한 것으로 티에르 뷔글러에 의해 시도됨으로써 착시현상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모자의 색채는 주로 액센트 배색을 통해 시선의 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착시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그림 4-17>에서도 짙은 의복의 색상과 블랙의 레이시한 모자를 대조시킴으로써 액센트 배색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아도 액센트 배색은 주로 보색관계나 무채색인 화이트와 블랙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표 3〉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의복과 모자 디자인과의 관계

분류	사진 번호	사진	형태		색채		소재		장식	
			의복	모자	의복	모자	의복	모자	의복	모자
화 가 의 작 품 을 응 용	4-1		부분형	부분형	그린 레드 옐루우	화이트 그린 레드	실크 재킷	깃털	커프스 텔장식	털장식
			라펠-삼각형, 소매커프스- 부정형	부정형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부드러움 블루명합 무광택		
	4-2		전체형	전체형	블랙	블랙	레이스	깃털	시퀸	깃털 장식
			원피스-모래 시계형	원의 호	모노 톤 배색		거침, 투명합, 무광택	부드러움 블루명합 무광택		
스케 일의 과장 혹은 확대	4-3		부분형	부분형	오렌지, 블랙	레드, 화이트	실크	펠트		
			스커트- 원기동	입술형태- 타원형	콤플렉스 배색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매끄러움 블루명합 무광택		
	4-4		전체형	전체형	블랙	레드	슬릭한 소재	실크(실키)		
			원피스- 비정형	입술형태	액센트 배색		빳빳함, 투명합, 무광택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데 빼 이 즈 망	4-5		부분형	부분형	블랙, 옐로우, 블루, 화이트	옐로우	실크혼방	스트로우	개더	코사지
			스커트와 소매가 배럴형	원형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거침 블루명합 무광택		
	4-6		전체형	전체형	블랙	실버	모직	메탈		
			비정형	원기동			매끄러움, 블루명합, 무광택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아 플 리 케	4-7		부분형	전체형	블루	골드	비닐	메탈		
			솔-나선형의 문양	눈물방울형			매끄러움, 색상에 의한 블루명합, 광택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4-8		전체형	전체형	골드	골드	에나멜 코팅 소재	에나멜 코팅 소재	방사 상의 개더	
			방사선의 주름	스칼럽	모노 톤 배색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슬리브 레이스	4-9		부분형	전체형	블랙, 레드	블랙	폴리초 가공직물 레이스	메탈		슬리브 레이스
			슬리브의 눈물방울형	눈물방울형			거침 투명합 무광택	거침 투명합 무광택		
	4-10		부분형	부분형	그레이 블루	레드 브라운	실크	펠트	패치 워크	
			패치워크-사 각형	직육면체			매끄러움 블루명합 광택	매끄러움 블루명합 무광택		

분류	그림 번호	사진	형태		색 채		소재		장식	
			의복	모자	의복	모자	의복	모자	의복	모자
기법 응용	4-11		전체형	전체형	블랙	블랙			보우 레이스 시퀸	핀턱 비즈
			부정형	부정형	모노 톤 배색					
트로프 회유	4-12		전체형	부분형	그린	레드계열	실크	실크		
			원기둥	침정홍예형	액센트 배색		매끄러움 불투명함 무광택	매끄러움 불투명함 무광택		
기법 응용	4-13		부분형	전체형	블랙, 화이트	블랙	면혼방	펠트		
			침정홍예형	원형			매끄러움 불투명함 무광택	매끄러움 불투명함 무광택		
기법 응용	4-14		부분형	부분형	핑크, 브라운, 블루	블랙	상의-실크 하의-쉬폰	해어		
			상의- 모래시계형 스커트-끝이 잘린 원뿔형	원형, 원기둥	콤플렉스 배색		상의-부드러움 불투명함, 광택 하의-뻣뻣함 색상에 의해 불투명함, 무광택			
기법 응용	4-15		부분형	전체형	그린, 블랙	블랙	실크	펠트		프린지 프린지
			배럴형의 스커트	원기둥			매끄러움 불투명함 광택	매끄러움 불투명함 무광택		
기법 응용	4-16		부분형	부분형	화이트 브라운	화이트 브라운	혼방직물	혼방직물		파이핑 파이핑
			스커트 햄라인 -사다리꼴	모자 브립 부분 -사다리꼴	모노 톤 배색		거침 불투명함 무광택	거침 불투명함 무광택		
자연 물의 응용	4-17		부분형	전체형	블랙 그린 핑크	블랙	실크	레이스	레이스 아플리 케	레이스 비즈
			끌이 잘린 원뿔형의 스커트	원형			매끄러움 불투명함 광택	거침 투명함 무광택		
자연 물의 응용	4-18		부분형	부분형	레드그린 네이비 블루	레드 그린	실크			파이핑
			부정형	부정형			매끄러움 불투명함 광택			
자연 물의 응용	4-19		부분형	부분형	엘로우 그레이 화이트	화이트 그린 엘로우	혼방			코사지 코사지
			원형의 꽃장식	원형의 꽃모양			매끄러움 불투명함 무광택			

도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그림 4-10>, <그림 4-15>는 실크소재의 원피스에 펠트모자가 각각 매치된 경우이다.

소재에 있어서, 면혼방-펠트, 실크-펠트, 실크-레이스 등 대비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장식에 있어서, <그림 4-15>에서처럼, 스커트의 프린지가 모자의 프린지에 그대로 옮겨져 이용되거나 <그림 4-16>의 스커트 헵 라인에 가한 파이핑 처리가 모자의 브림 부분까지 이어짐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5) 자연물의 응용

자연물의 응용은 꽃이나 풀과 같은 자연물의 형태를 모자로 제작한 초현실적인 작품으로, 이는 주로 개방형이자 부정형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그림 4-18>⁵¹⁾은 이에 반해 의복은 폐쇄형이자 부분형으로 인지되며 스커트의 형태는 꽃잎 형태의 부정형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4-19>⁵²⁾는 모자의 꽃 모양이 폐쇄형이자 원형으로 분석될 수 있고, 의복은 비정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디자인으로서, 의복에서 원형의 꽃 장식과 원형의 모자간에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 꽃이라는 아이템 때문에 다양한 색상이 의복과 모자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색채의 조화라기 보다는 의복의 꽃문양이 모자의 꽃형태로 사용된다든지, 의복의 주조색이 모자의 색상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적용되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 의복의 소재가 쓰이기 보다는 단순히 조화를 제작하는데 활용되는 소재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상을 분석한 결과,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모자디자인은 데并不意味의 원리와 트롱프 뢰유에 의하여 모자의 형태는 모래시계형, 원기둥, 배럴형, 나선형, 원형, 끝이 잘린 원뿔형, 첨정홍예형 등을 보이면서 의복 재킷의 라펠, 스커트, 원피스의 형태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부정형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주로 액센트 배색을 통해 모자에 포인트를 주면서 극적 효과

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는 초현실주의적 특징의 모자들이 주로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의복과의 형태적 대비에서 오는 산만함을 색채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액센트 배색을 통해 시선의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으며, 이 외에도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착시효과를 노리기도 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는 데并不意味의 원리에 의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색채처럼 소재도 주로 대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장식에 있어서는 의복의 장식이 모자에 그대로 옮겨져 적용되거나 의복의 문양의 형태가 모자에 그대로 옮겨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모자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초현실주의적 예술양식을 중심으로 의복과 모자와의 관계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모자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췌한 사진은 2차례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자가 착용된 총 1381점 중 초현실주의 모자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사진 207점을 최종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시기별 초현실주의적 모자디자인의 경향은 200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과 모자와의 조형적 관계를 데이비스와 들통의 조형적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분석하여, 현재의 트렌드에 맞춘 모자 디자인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모자디자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모자디자인은 데并不意味의 원리와 트롱프 뢰유에 의하여 화가의 작품을 응용한 경우에는 원의호, 입술형태 등의 모자의 형태와 삼각형 라벨 및 모래시계형, 원기둥형태의 의복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색채에 있어서는 주로 모노톤 배색이나 콤플렉스 배색, 액센트 배색 등 다양한 배색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레이-

스-깃털, 실크-펠트 등 대비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장식은 의복과 모자가 털장식 등 유사장식을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케일의 변화를 보이는 모자에 있어서는 배럴형의 의복과 원형의 모자, 색채에 있어서는 의복에 사용된 색채가 모자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소재에 있어서는 실크 혼방 의복과 스트로우 모자소재가 대조를 보이고 있었으며, 장식에 있어서는 깨더장식의 의복과 코사지 장식의 모자 등 대비를 보이기도 하였다.

데并不意味 기법을 응용한 경우, 주로 의복은 비정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이와 함께 모자에 있어서도 눈물방울형 및 스칼럽 등 비정형을 보이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는 모노톤배색이 주를 이루었고, 소재에 있어서는 모직과 펠트, 모직과 메탈 등 대비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장식은 주로 의복에는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모자의 장식은 거의 불수가 없었다.

트롱프-뢰유 기법을 응용한 경우, 모자디자인은 원형, 원기둥 등이 주로 선보이고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배럴형이나 원뿔형등이 의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색채에 있어서는 주로 모노톤 배색, 소재에 있어서는 유사소재, 장식에 있어서는 의복과 모자가 같은 장식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자연물 응용의 경우, 의복의 부정형 형태와 유사하게 모자의 형태 또한 부정형을 보이고 있었으며, 소재의 유사성 보다는 색채의 유사성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식도 유사장식으로 조화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의복과 모자 디자인의 조형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복과 모자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의복의 조형적 요소에 대응하며 이에 따라 모자 스타일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현실도피의 특징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세계경제 불황과 함께 모자디자인에서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초현실주의적인 모자가 단순히 모자라는 아이템 하나만이 아닌 의복과의 관계

를 고려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Milbank, C. R. (2002). *The Couture Accessory*.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 20.
- 2) Laver, J. (1948). *Taste and Fashion*. London: George G. Harrap & Co. Ltd., p. 104.
- 3) Colin McDowell (1989).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Thames & Hudson Inc., p. 196.
- 4) Amy De La Haye & Shelley Tobin(1995). *Channel "The Couturiere at Work"*. The Victoria & Albert Museum, p. 10.
- 5)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1999). *20th century fashion*. Thames & Hudson, p. 71.
- 6) Francois Baudot (1996). *Fashion memoir-Chanel*. Thames & Hudson, p. 49.
- 7) Francois Boudot (1997). *Fashion memoir-Elsa Schiaparelli*. Thames & Hudson, p. 11.
- 8) Callot sisters(까요자매)는 까요 제르베르(Marie Callot Gerber)와 마리떼 까요 베르트랑(Marthe Callot Bertrand), 레지나 까요 샹들레(Regina Callot Chantrelle)라는 까요가의 세 자매로 구성되어 전통 의상이 나 동양풍, 란제리 등을 제작한 부띠끄이다.
- 9) 이영환 (1988). 서양미술사. 서울: 평화당, p. 411.
- 10) 팩미영 (1995).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윤계숙 (1993).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해성 (1985). 현대미술을 보는 눈. 서울: 열화당, p. 79.
- 13) 위의 책, p. 80.
- 14) Philip Treacy. *Mode et Mode*, '00 S/S
- 15) Moschino. *Mode et Mode*, '95-'96 F/W
- 16) Rebert Hughes 저, 최기득 역 (1993). *새로움의 충격*. 미진사, p. 22.
- 17) Jean Louis Scherrer. *Gap Collections*, '03-'04 A/W
- 18) Francois Boudot (1997). *op. cit.*, p. 11.
- 19) *ibid.*, p. 7.
- 20) Givenchy. *Mode et Mode*, '99 S/S
- 21) Alexander McQueen. *Mode et Mode*, '05 S/S
- 22) Brigid Keenan (1983). *Dior in Vogue*. Random House Value Publication, p. 55.
- 23) Palmer White (1986). *Elsa Schiaparelli*. A Eugene Braum-Munk Book, pp. 59-60.
- 24) Tierry Mugler. *Mode et Mode*, '98-'99 F/W
- 25) Dolce&Gabbana. *Mode et Mode*, '09-'10F/W
- 26) Christian Lacroix. *Mode et Mode*, '91 S/S
- 27) Pierre Balmain. *Mode et Mode*, '92-'93 F/W
- 28) Philip Treacy. *Mode et Mode*, '00 s/s
- 29) 조규화 (1995). 服飾辭典. 경춘사, p. 56.

- 30) Davis, M. L. (1980). *Visual Design in Dres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pp. 93-113.
- 31) Delong, M. R. (1950). *The Way We Look*. 금기숙
역 (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즘, p. 82.
- 32) 위의 책, p. 27.
- 33) 콤플렉스 배색은 의외적인 배색으로 자연이 만들어
내는 친숙한 배색에 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의
외성이 있는 복잡한 배색을 말한다.
- 34) Louis Féraud. *Mode et Mode*, '96 S/S
- 35) Givenchy. *Book Moda* '98 A/W
- 36) Philip Treacy. *Mode et Mode*, '03 S/S
- 37) Philip Treacy. *Mode et Mode*, '03 S/S
- 38) Louis Féraud. *Mode et Mode*, '90 S/S
- 39) Jean Paul Gaultier. *Fashion memoir*, '92-'93 A/W
- 40) Paco Rabanne. *Mode et Mode*, '95-'96 F/W
- 41) Givenchy. *Mode et Mode*, '97 S/S
- 42) Givenchy. *Mode et Mode*, '97-'98 F/W
- 43) Christian Lacroix. *Gap Collections*, '01 F/W
- 44) Givenchy. *Mode et Mode*, '99 S/S
- 45) Tierry Mugler. *Mode et Mode*, '98-'99 F/W
- 46) Philip Treacy. www.firstview.com/pliliptreacy, '00 S/S
- 47) Tierry Mugler. *Fashion memoir*, '97 F/W
- 48) Jean Paul Gaultier. *Gap Collections*, '03 S/S
- 49) Christian Dior. *Gap Collections*, '00 S/S
- 50) Christian Lacroix. *Gap Collections*, '01 F/W
- 51) Louise Féraud. *Mode et Mode*, '90 F/W
- 52) Christian Dior. *Mode et Mode*, '03 S/S